

진도 농수특산물, 글로벌 시장 판매 기회 넓힌다

군, 공항철도 서울역 ‘농수특산물 물품 수령처’ 개소
국내 최초 외국인 관광객들 출국 전 수령 공간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을 알려 판로 확대를 위해 물품 수령처를 마련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에서 진도 농수특산물 물품 수령처(픽업센터)인 ‘글로벌 디지털 케이-푸드 허브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물품 수령처(픽업센터)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소비자가 진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출국하기 전에 서울역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마련한 국내 최초의 거점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예약 서비스(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에서 진도 농수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하

고, 서울역 센터에서 상품을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물품 수령처(픽업센터)는 진도군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유통과 물류 체계를 연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진도 농수특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품목은 진도에서 생산된 대표 농수특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한 간장게장, 쌀, 전복장, 곰창김, 울금과 죽을 활용한 화장품, 참기름 등 다양하다.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특산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에서 진도 농수특산물 물품 수령처(픽업센터)인 ‘글로벌 디지털 케이-푸드 허브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이번 사업은 지역 농수특산물과 클룩(KLOOK), 디지털 유통과 물류를 하나로 연결한 케이(K)-음식(푸드) 해외 진출 방식으로, 진도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픽업센터 개소는 진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국

내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매 기회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다”며 “진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지고, 진도

군 공동브랜드 ‘진도잇츠(jindo eats)’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목포, 민선 9기 정책 실현...첫 조직개편 추진

시민주권실·인구청년실 신설...인구 대전환 기틀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생활인구 100만 달성과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시민참여형 시정 운영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능을 확대하

는 한편,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10국 49과에서 10국 50과 체제로 재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직속 ‘시민주권실’과 부시장 직속 ‘인구청년실’ 신설이다.

시민주권실은 시민이 시정 정책의 제안부터 실행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주권 행정을 구현한다.

인구청년실은 생활인구 100만 목표 달성과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청년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세정과와 별도로 징수과를 신설해 세입관리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

을 도모할 방침이다. 통합돌봄과 신설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직개편안이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 정기간사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기간 내 목포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최근 군청에서 강진원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총력 대응

3차 공모 앞두고 전략 점검...선정 준비에 행정력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선정을 목표로 부서 간 협업과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브레인스토밍에 이어 공모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서별 연계 사업의 구성과 실현 가능

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과 지역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진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 기준인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 등 5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직접 확인했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며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영암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 476명 참여

60개 기업 현장 면접 80건 진행...맞춤형 취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최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년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구직자 476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6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사전 현장 접수를 통해 구직자

476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현장 채용관에 참여한 20개 기업에서는 구직자와의 1대 1 면접 80건이 진행됐다.

특히 취업을 앞둔 구립공업고등학교 재학생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해군제3함대사령부 예비전역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무체험과 모의면접, 창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 준비를 돕는 부대 행사도 운영됐다. 이들 부스의 총 이용 건수는 786건을 기록했다.

영암군은 앞으로 현장 면접과 간접채용을 통한 최종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맞춤형 채용 정보와 직업훈련을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도 적합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알선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과 근속 여부 등을 점검해 박람회의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박호진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지역 청년과 예비전역자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자리가 됐다”며 “박람회 이후에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이어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